

효과적인 취업 준비방법 프리젠테이션 및 요약

백순철, Ph.D. Texas A&M University, 현재 Texas Instruments 근무

사실 대부분의 일자리는 개인적인 추천이나 소개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못가진 사람이 이력서 하나만을 가지고서 남아있는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것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것입니다.

인터뷰하고 싶은 몇사람을 추려내기위해 수백장의 이력서를 읽어야만하는 채용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이력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충 초반부를 훑어보다가 별로 인상적이지않으면 다음 이력서를 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기회라도 얻고 싶으면, 이력서의 시작부분에 자신을 고용해야만하는 이유를 빠른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런 저런 일을 해본적이 있다고만 쓰지말고, 이런 저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적어야만 채용자의 관심을 끌수있습니다. 성과를 적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숫자도 나열해가면더 훌륭한 이력서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이력서와는 달리, 사진, 나이, 취미, 종교등 불필요한 정보를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에 오타가 있고, 문법이 틀려서도 안되니까 주변사람한테 미리 읽어보록 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회사는 구인광고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를 명시하므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일자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력서를 가다듬어야 하는것은 물론입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는 갑자기 전화인터뷰가 올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할까 준비를 해 놓는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없는 회사에서 인터뷰하자고 해도 뿌리치지 말고 일단 가서 자신의 인터뷰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것 잊지 말아야합니다. 전 직장의 상사를 비난한다던지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를 구해야 하는 회사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해야합니다.

이력서를 잘쓰고 인터뷰를 잘하는것은 배울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각종 취업준비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개인의 실력이되고 훌륭한 이력서를 쓸수 있는 바탕이되며, 개인적인 추천을 통해 쉽게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때문입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단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지도 교수나 동료, 상사가 감탄할수 있게 일을 잘 하는것이 나중에 강력한 추천을 받을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것입니다.